

11일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해 빛 쨍쨍

제목 : 대한항공 행사

나는 토요일날 승주와 다른 친구 언니 동생 오빠와  
대한항공을 갔다 아주 넓고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신기한 것들도 많은 곳이었다. 옛날에 가 보았지만  
생각이 잘 안나서 못했다. 그리고 행사가 있었는데 승주와  
내 언니는 행사의 참여 하였다. 승주와 내 언니는 청팀이었다.  
행사 이름은 명랑운동회였다. 그런데 백팀이 이기고 청팀이  
졌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드림 센터에 아주 크고 과학에  
대한 것이 많았다.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에어 바운  
스가 있는데 초등학생만 가는 곳 다 갈수 있는 에어 바운스가  
있었는데 다 갈수 있는 에어 바운스에서 승주랑 놀다가 어떤  
한 어린 남자 아이가 밀려니 넘어져서 팔꿈치로  
아주 세게 맞고서 코피가 나가 주고 엄마한테 갔다가  
코피를 멈추게 하려고 숨을 넣기도 하고 약도 가져오기도 하였  
다. 그리고 갔다 와서 승주랑 그날때 만난 친구 할머니가  
승주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에어 바운스에서 허판 남자  
아이가 내 친구에 코를 치고 미안하다는 소리 없이 가고  
그런데 내 친구는 잘 놀아요. 그리고 승주랑 가장 친한 친구  
할머니가 크게 대한항공 파이팅! 쓰고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하고 승주랑 그날때 만난 친구가 할머니가 쓴 것을 따라  
쓰고 냈는데 30분도 지났고 명랑운동회 시작 되서 상품도  
못 받았다.